

광양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디지털 격차 해소

읍 골프장서 30일까지 2주간 총 4회
보조강사 교육 기자재 지원 수업 방식
80%이상 고령층 스마트폰 기능 위주
“디지털 활용법 지도 지속적으로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주간 총 4회에 걸쳐 광양읍 그라운드골프 회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전남 디지털배움터 파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전

남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단(KTcs)에서 강사, 보조강사, 교육 기자재를 지원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광양읍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회원의 80% 이상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스마트폰 기능 위주로 강의 내용이 구성됐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외에도 광양시는 광양커뮤니티센터를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로 지정해 상시 운영 중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 강사진이 상주하며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강의실 앞 로비에는 △AI 기반 눈 검진 장비 △디지털 혈압계 △인바디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 △키오스크

등 5종의 디지털 체험존이 설치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존에는 전담 가이드가 배치돼 기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 교육은 거점센터 교육과 파견교육으로 나뉘며 거점센터 교육은 광양시 누리집(www.gwangyang.go.kr) 통합예약시스템 내 ‘디지털배움터’ 항목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파견교육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의 ‘배움터교육’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디지털정보과(061-797-2462)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미 광양시 디지털정보과장은 “시민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일본 식품기업 투자유치 원재료 공급 기반 등 안내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15일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일본식품기업 ‘아카시마 르세 타카노 코지’ 대표를 초청해 제조공장 설립 후보지 방문과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장흥군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과 안정적 원료 수급 여건, 물류 접근성, 합리적 부지 조건, 각종 투자 인센티브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장 방문에서는 장흥군의 투자기업 인센티브와 수출 인프라, 원재료 공급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현장 설명에는 장흥군 외에도 전라남도 외자유치팀 등 관계기관이 함께해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밀착 대응했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은 청정한 원재료와 우수한 가공·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식품기업 투자의 매우 적합한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 투자 성과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



농촌봉사활동 업무협약 농협광주본부-호남대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와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지난 15일 호남대학교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이 나뉘었다.

18일 농협광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지역소멸 위기 등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 박상철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농촌봉사활동 참여 학생에 대한 학점 및 봉사시간 인정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대학 발전기금 지원(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 △농촌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총장은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대학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호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호남대학생들과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의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 여수시, 4360세대 단수

전라남도 여수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1일간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42곳을 대상으로 청소·소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청소·소독하고 점검·보수를 병행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급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물탱크가 2개인 배수지는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진행하나 물탱크가 1개인 일부 배수지의 경우 단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13개 지역 약 4360세대가 단수될 예정이다.

5월 단수 일정은 △20일(오전 9시~오전 11시) 현암도서관 일원 △28일(오전 9시~오전 11시) 두암택지지구 일원 △29일(오전 9시~오후 3시) 성두·계동마을, 향일암매표소 일원 △30일(오전 9시~오전 11시) 진두·상하동마을 일원 등이다.

6월 단수 일정은 △5일(오전 9시~오후 3시) 데코빌리지빌라, 오천동, 만성리 일원 △9일(오전 9시~오전 11시) 자산공원 일원 △10일(오전 9시~오후 1시) 돌곡마을, 구봉중학교 일원 △11일(오전 9시~오후 3시)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주택단지 일원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단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비상용 물을 충분히 마련해 놓는 등 철저히 대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봉화산공원 도로 구간 재포장 순천시, 22~23일 통제

전라남도 순천시는 조곡동 방면 봉화산 근린공원의 노후된 관리용 도로 1.4km 구간에 대해 전면 재포장 공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포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노후화로 인한 포장면 균열과 파손을 복구하고 사고 위험이 높았던 승산교회 인근 미끄럼 방지 포장도 재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조곡동 수정아파트에서 팔마가든까지 이어지는 노후 도로 구간(1.4km)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전면 재포장하는 사업이다.

우선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수정아파트에서 연자루까지의 구간이 전면 통제되며 이튿날인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연자루에서 팔마가든까지의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수산물유통센터를 찾아 수산물을 살펴 보고있다. 광양시는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산물 도매시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광양시가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 수산물 도매시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수산물 유통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매시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산물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견학은 도매시장의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해 수족관 내 다양한 수산물을 관찰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후 어린이들은 역할놀이 체험을 통해 어부가 되어 낚시 놀이를 하며 수산물 유통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체험 이후에는 광양시 마술 동호회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마술 공연이 더해져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고 즐거움을 배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중학생 해외 문화 체험 지원…글로벌 역량 강화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전라남도 고흥군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관내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참가 학생은 관내 16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청소년 단체 활동 우수자들이다.

학생들은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아사쿠사 관음사, 도쿄대학교, 디즈니랜드, 몰입형 디지털 아트 전시관 ‘팀랩 플래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고흥군이 관내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고흥군 제공

닛’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해 일본의 역사, 문화, 예술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지

속적으로 제공해 지역 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